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잠자던 달러 고개를 들다..숏포지션 청산에 추가 강세 가능성
 - ◇ (초점)-외환시장도 흔들었던 '서학개미'의 변심..추세 전환으로 봐야 하나
 - ◇ (초점)- 더 어려워진 원화채 전략..키워드는 '두번째 인상·오버슈팅·커브'
 - ◇ (초점)-외환당국, 행동규범 보완 제기..원화 전자거래 시스템 추진 '확고'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발사된 유인 우주선 선저우 12 호가 3 명을 태우고 날아 오르고 있다. (로이터/카를로스 가르시아 롤린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18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32.3	-1.9%	-4.1%	+6.5%	유로	1.1860	-2.0%	-2.9%	+8.9%
100엔 대비	1,029.9	-1.2%	2.1%	+1.1%	엔	110.19	-0.5%	-6.3%	+5.2%
유로 대비	1,346.0	0.4%	-1.5%	-2.3%	위안	6.4490	-0.9%	1.2%	+6.7%
위안 대비	175.86	-0.8%	-5.4%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3,290.08	-3.4%	8.8%	+7.2%
코스피	3,267.93	0.6%	13.7%	+30.8%	나스닥	14,030.38	-0.3%	8.9%	+43.6%
코스닥	1,015.88	2.5%	4.9%	+44.6%	S&P500	4,166.45	-1.9%	10.9%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95.63	-1.4%	5.1%	+19.8%
국고채 3Y	1.313%	3.7bp	33.7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78%	2.0bp	34.3bp	-14.5bp	미국채 2Y	0.252%	10.3bp	13.1bp	-144.0bp
국고채 10Y	2.041%	-6.0bp	32.8bp	+3.0bp	미국채 10Y	1.443%	-1.0bp	53.1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1.64	1.0%	47.7%	-20.5%	한국 5Y	18.4bp	0.2bp	-3.6bp	+0.1bp
금(현물)	1,763.34	-6.0%	-7.1%	+25.0%	일본 5Y	16.8bp	0.0bp	1.7bp	-4.5bp
TR상품지수	2,928.92	-0.2%	9.3%	+7.8%	중국 5Y	36.4bp	0.8bp	8.4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6월 21일(월)>

- 관세청, 6월 1-20일 수출입 동향

<22일(화)>

- 한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11:00)

<23일(수)>

- 기재부, 2차관 재정운용전략회의(10:00)
- 통계청, 4월 인구동향 · 5월 국내인구이동(12:00)
- 국회 대정부질문(14:00)

<24일(목)>

- 한은,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10:00)
- 한은, 근원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BOK 이슈노트 2021-15)(10: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1차관 정례 브리핑(13:30)
- 기재부,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7:00)

<25일(금)>

- 한은,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 한은,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6월 21일(월)>

- 중국 6월 대출우대금리 (10:30)
- 미국 5월 전미활동지수 (21:30)

<22일(화)>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6월 서비스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행 (21:30)
- 미국 5월 기존주택판매 (23:00)
- 유로존 6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23일(수)>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하원 코로나 위기 분과 위원회 증언 (03:00)
- BOJ, 4월 26-27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공개 (08:50)
- 일본 6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6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17: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5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1분기 경상수지 (21:30)
- 미국 6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미국 5월 신규주택판매 (23:00)

<2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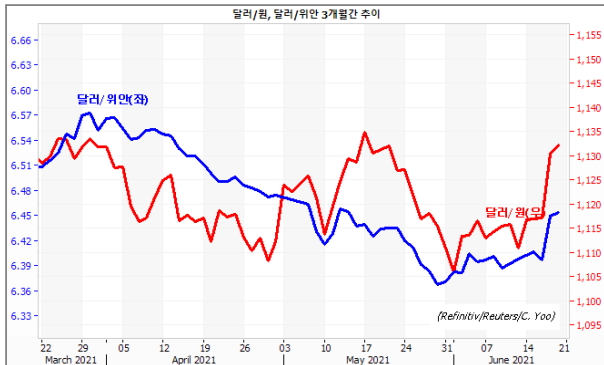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 ·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20:00)
- 미국 1분기 기업이익 수정치 · GDP 잠정치 (21:30)
- 미국 5월 내구재판매 · 도소매 재고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6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25일(금)>

- 일본 6월 도쿄 CPI (08:30)
- 유로존 5월 총 유동성(M3) 증가율 · 가계대출 (17:00)
- 미국 5월 개인소득 · 근원 PCE 가격지수 (21:30)
-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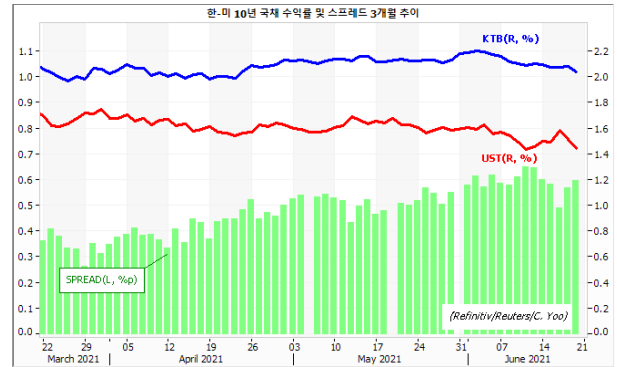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움직임 따라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20-1145 원이다.
- 지난주 달러지수는 주간 약 2% 급등해 14 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 전망에 달러 약세가 형성됐던 데 대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이에 이번 주 달러/원은 글로벌 달러 상승 강도와 지속력에 초점을 맞추며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 이같은 대외 여건을 볼 때 원화는 이전보다 약세 변동성을 키울 여지가 커졌다. 달러/원 매수심리에 본격 불이 붙을지는 수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물론 변동성 리스크도 있다. 네고가 한발 물러서거나 달러 추가 강세 우려에 저점 결제성 수요가 더 활발하게 유입되고 역외 매수까지 가세한다면 달러/원 상승 변동성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 이번 주는 제롬 파월 의장 등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 스탠스 파악에 신경 쓸 전망이다. 또한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수와 PCE 물가 결과도 주목된다.
- 한편 국내는 20 일 기준 수출입 현황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안정 목표 관련 기자회견담화가 예정돼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대내외 채권시장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급등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급락세로 돌면서 원화 채권시장도 함께 출렁이고 있다.
- 단기물을 중심으로 약세 압력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자 커브 플래트닝이 두드러지고 있다.
-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따라 경기 반등세가 빨리 가라앉을 수 있다는 시장참가자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결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다. 오는 24 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어 채권시장에선 매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과 관련한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22 일(현지시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하원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21 일,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22 일 각각 연설을 예고하고 있다.
- 오는 25 일 나올 미국의 PCE 인플레이션 지수는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복병이다. 활발한 백신 접종에 힘입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던 영국에서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 만명대로 나타나자 전세계적으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유럽 주요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채권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분석)-잠자던 달러 고개를 들다..숏포지션 청산에 추가 강세 가능성

6월 18일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스탠스 전환으로 달러 가치가 수개월만의 최고치까지 오르는 등 달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에 달러 숏 포지션 축소가 추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연준이 2023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뒤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달러지수는 2거래일 기준 15개월 만의 최대폭 상승이 예상되며, 4월 중순 이후 최고치 부근에 머물고 있다.

도비시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주장에 달러 가치는 올해 초 근 3년 만의 최저치까지 하락했고, 지난 수개월 동안 달러 숏 포지션은 매우 활발한 거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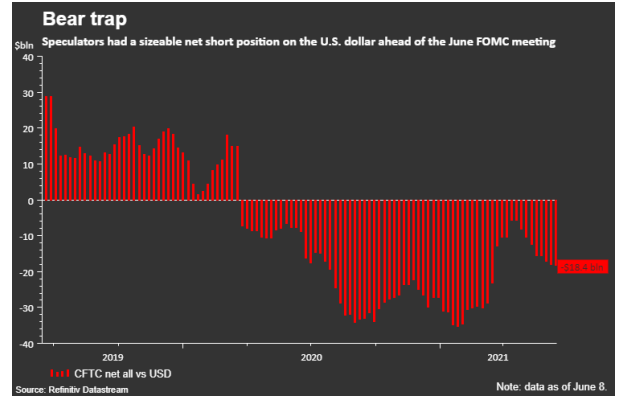
그러나, 연준이 살짝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계산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예상보다 빠른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로, 엔 등 다른 통화 대비 달러의 매력은 더 높아져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골드만삭스와 도이치은행의 경우 연준 정책회의가 끝난 후 유로/달러 상승 베팅을 축소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모빅스유럽의 사이먼 하비 선임 외환시장 애널리스트는 "외환시장이 마침내 연준의 조기 정책 정상화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달러 숏 포지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달러 추가 상승 조짐이 투자자들의 숏 포지션 조정을 부추긴다면 최근 달러 상승세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따르면 선물시장 내 달러 순 숏 포지션은 지난주 약 180억달러로 3개월 만의 최대에 달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 유리존 SLJ의 스티븐 젠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난 1년간 인기를 끌었던 숏 달러 이론은 향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혹독한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NP 애셋매니지먼트의 모트칠 포자리에브 외환 헤드는 연준 회의 이후 엔 대비 달러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은 그동안 인내했지만, 우리 모두 연준이 어느 순간 (매파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달러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달러 변동은 다양한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달러로 환전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손해를 보게 되며, 달러로 주로 거래되는 원자재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블루베이애셋매니지먼트의 카스파 헨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금리 상승 전망으로 리스크 자산과 주식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연준 회의 이후 유로에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달러 약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월간 120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등 연준의 완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며,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면 다른 중앙은행들도 정상화 움직임을 따를 가능성이 커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 격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경제 회복 영향에 장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소시에테네랄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로/달러가 현 1.19 달러에서 올해 말 1.27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운디파이오니아어셋매니지먼트의 페레쉬 우파디아야 외환 전략 디렉터 및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달러 약세 전망은 기술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분명 타격을 입었으나,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을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다른 주요 10개국(G10)과 신흥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준 회의를 앞두고 달러 숏 포지션을 축소했지만, 달러 가치는 결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초점)-외환시장도 흔들었던 '서학개미'의 변심..추세 전환으로 봐야 하나

서울, 6월 15일 (로이터) 박예나 · 이지훈 기자 - 좀처럼 식지 않을 듯 뜨거웠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줄고 있어 향후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개인들은 해외 주식을 약 200억달러어치 순매수해 역대 최대 기록을 썼고,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월간 최대 규모를 순매수하는 등 개인들의 투자 열풍은 거셌다.

이에 개인 해외 주식 투자 및 관련 자금 흐름이 외환시장에 새로운 수급 변수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했고, 이같은 수급이 원화의 상대적 부진 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월을 기점으로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점차 감소하다가 5월 소폭 순매도로 돌아섰고 이달 들어서는 11일까지 약 1억달러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 '서학개미'의 변심 이유는?

개인 해외 주식 투자 열기를 가라앉게 한 데는 테슬라, 'FAANG', 나스닥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주가 인플레이션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기조 변화 우려에 부진했던 이유가 가장 크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월별 개인 해외 주식 순매수는 1월 월간 사상 최대치인 52억달러에서 2월 32억달러, 3월 30억달러, 4월 23억달러로 서서히 줄다가 5월 0.5억달러 순매도로 돌아섰다.

5월 중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단기간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에 1.7%대로 속등했고, 이는 기술주 주가에 직접 타격을 입혀 나스닥지수는 5월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올랐던 작년 하반기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테슬라 순매수 규모는 25억달러였는데 올해에는 6월 14일까지 17억달러로 줄었다. 애플도 올해 9억달러로 작년 하반기 15억달러보다 줄었다.

나정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해외 주식 투자는 테슬라, 'FAANG' 등 성장주에 주로 집중되었는데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이전 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투자심리가 가라앉았다"고 말했다.

▲ 환시 영향력도 주춤..추세는 유지될 듯

개인 해외 주식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 1월에는 개인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무역수지를 웃도는 등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변수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요도가 잠시 잦아들었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연준 긴축 시그널을 모두 경계하는 상황이다 보니 현금 보유에 대한 유인이 커지고 있다. 다른 수급 주체들도 경계감이 높게 유지되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한국 외환 수급 관련 보고서에서 개인 해외 주식 매수세가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추세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진 않는다면서 최근 한 달간 나스닥지수와 한국 개인 투자자 매매의 상관관계는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 전문가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미국 주식 변동성이 확대되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심리로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몰렸다면, 이같은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개인 투자자처럼 영리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투자가 확인될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초점)-FOMC 뒤 더 어려워진 원화채 전략..키워드는 '두번째 인상·오버슈팅·커브'

서울, 6월 17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원화 채권 투자자들도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섰다.

한국은행의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며 단기물을 중심으로 약세 압력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글로벌 장기금리마저 출렁이면 "피할 곳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미 높아진 시장금리 레벨을 감안할 때 숏도 여의치 않지만 그렇다고 롱 포지션을 구축하기 쉽지 않고, 커브 플랫너의 언와인딩 가능성 때문에 커브의 방향성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대다수 딜러는 시장이 오버슈팅할 때마다 반대매매로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사 등 국내 기관들의 손절과 반기말 자금 사정 등 마찰적 요인들이 적지 않아 타이밍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시장의 컨센서스다.

현재 시장에는 연내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부터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한 차례씩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나리오,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 후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인상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국내 통화 당국의 향후 통화정책을 감안한 적정 시장금리 레벨을 판단하기 위해선 이번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두 번째로 인상되는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지금 단기채 가격이 싸다고 하지만, 지금이 9월이나 10월이 아니라 6월이라는 게 문제"라며 "다들 원래 롱 포지션을 들고 가다가 8월쯤부터 정리할 생각을 했는데 금통위가 6월부터 이렇게 강한 시그널을 주니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장에 짧은 쪽 채권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며 "기준금리가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인상된 후 내년 2, 3분기에만 인상돼도 현재 시장금리 레벨이 과도하지만,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이 될 경우엔 현재 시장금리가 정상화되는 상황이라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전망은 수익률 곡선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FOMC의 매파적 스탠스가 확인된 이상 하반기로 갈수록 이미 국내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을 반영한 단기물의 매력도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기본적인 큰 흐름은 여전히 커브 플랫닝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B 증권사 채권 딜러는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보면 당장 8월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다 정도로 보이고 올해 한 차례 인상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일단 단기물과 3년물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10년물은 그간의 커브 플랫에 대한 언와인딩까지 겹치면서 좀 더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C 자산운용사 채권 매니저는 "단기물은 여기서 더 밀리면 통화정책 관련 요인은 이미 다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남은 건 손절과 반기말 자금 사정 등 마찰적 요인뿐"이라며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기니 다들 했던 대로 커브 플랫을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FOMC 회의를 거치고 보니 이제 금리 레벨만 놓고 보면 불확실성이 없는 쪽은 오히려 단기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높은 금리에 사고 싶을 것이고 좀 더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뭘 하든 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내 통화당국의 시

그날이 워낙 강해 한꺼번에 가격으로 반영하는 장인 만큼 좀 더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D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당장 커브는 단기물이나 장기물이나 큰 차이 없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다만 결국 시장이 밀리면 장기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커브는 플랫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물은 다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 해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점)-외환당국, 행동규범 보완 제기..원화 전자거래 시스템 추진 '확고'

서울, 6월 1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원화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외환당국의 태도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올해 첫 대면 형식으로 열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 회의는 전자거래 관련 세미나였다. 이번 회의가 외시협 주최로 열렸다고는 하지만, 일정이나 내용상 당국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을 보서는 전자거래에 대한 당국 스탠스를 전달하려는 속내가 적잖이 읽힌다.

이번 세미나 발표자였던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 간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대고객 부문 전자거래는 초기 시스템 개발 수준에 머물러 글로벌 추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고객 부문 주도의 유동성 공급 확대 추세,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외환업무 다양화를 통한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업무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원화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당국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전자거래 확대와 함께 역외시장에서 원화 거래가 급증하자 당국은 원화 주도권에 대한 고민이 커졌고, 그렇다 보니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 역외시장과 괴리되지 않는 시장 환경 구축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그간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 초점을 맞추며 원화 전자거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해왔던 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장 내 화두로 던졌고, 나아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달러/원 현물환시장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 계획을 담을 만큼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 갈 길 정한 외환당국..명확한 시그널

이달 말경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전자거래 관련 내용은 똑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과거 애매한 자세를 취했던 외환당국은 이제 국내 외국환 은행들이 외국환 중개사의 API를 활용해 전자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대고객 전자거래 시스템을 개시하는 것에 '가능' 입장을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실 원화 전자거래 도입 자체가 법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당국 입장 정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결론에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환당국자는 외시협 차원에서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행동규범에는 전자 방식 거래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이는 은행 간 시장 거래에 관한 것으로 대고객 전자거래에 대한 용어 정의나 관련 규범은 없다.

오재우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은 "대고객 전자거래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자율 규약인 행동규범의 보완은 필요하다"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당국은 적극 지원할 것이고, 필요한 행동규범이 마련되는 대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외시협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 가운데 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한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앞으로도 이같은 일관된 목소리를 시장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더욱더 명확한 입장을 직접 밝

힐 수도 있어 보인다. 이와 동시에 당국은 시장의 자율적 행보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국은 외환시장 변화를 예고했으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원화 전자거래 시스템 도입에 있어 모든 은행이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뜻도 된다. 당국의 제도 도입을 위한 시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초점)-거듭 확인되는 외환시장 내 개인투자자 위상..향후 기대 효과는

서울, 6월 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여러 자산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에서도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초저금리와 막대한 유동성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행태가 외환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현물환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은 609억달러로 이전 분기보다 약 20% 급증해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외환 거래량 급증을 두고 한은은 수출입 규모 확대 이외에도 증권 투자 증가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외화 증권 결제액은 작년 4분기 898억 8000만달러에서 올해 1분기 1575억 6000만달러로 70% 이상 급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다만 2분기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기술주 조정 탓에 개인 해외 주식 투자는 잠시 주춤해졌지만, 해외 투자 확대 추세에서 개인들의 영향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개인 외화예금 최대..역할 커질까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5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개인 외화 예금은 한 달 사이 0.3억

달러 증가한 200.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5월 말 160억달러였던 개인 외화 예금은 1년 사이 약 40억달러 증가했다. 외화 예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에서 21.2%로 늘었다.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자산 다변화 측면에서도 달러 보유 유인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들은 환율 움직임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패턴도 감지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인 달러화 예금은 연속해서 줄었는데, 당시는 달러/원 환율의 상승기였다.

한 한은 관계자는 "개인들은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번 5월 개인 외화 예금은) 환율 하락에 대해 저가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도이치은행은 외환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들 시장 영향력 확대를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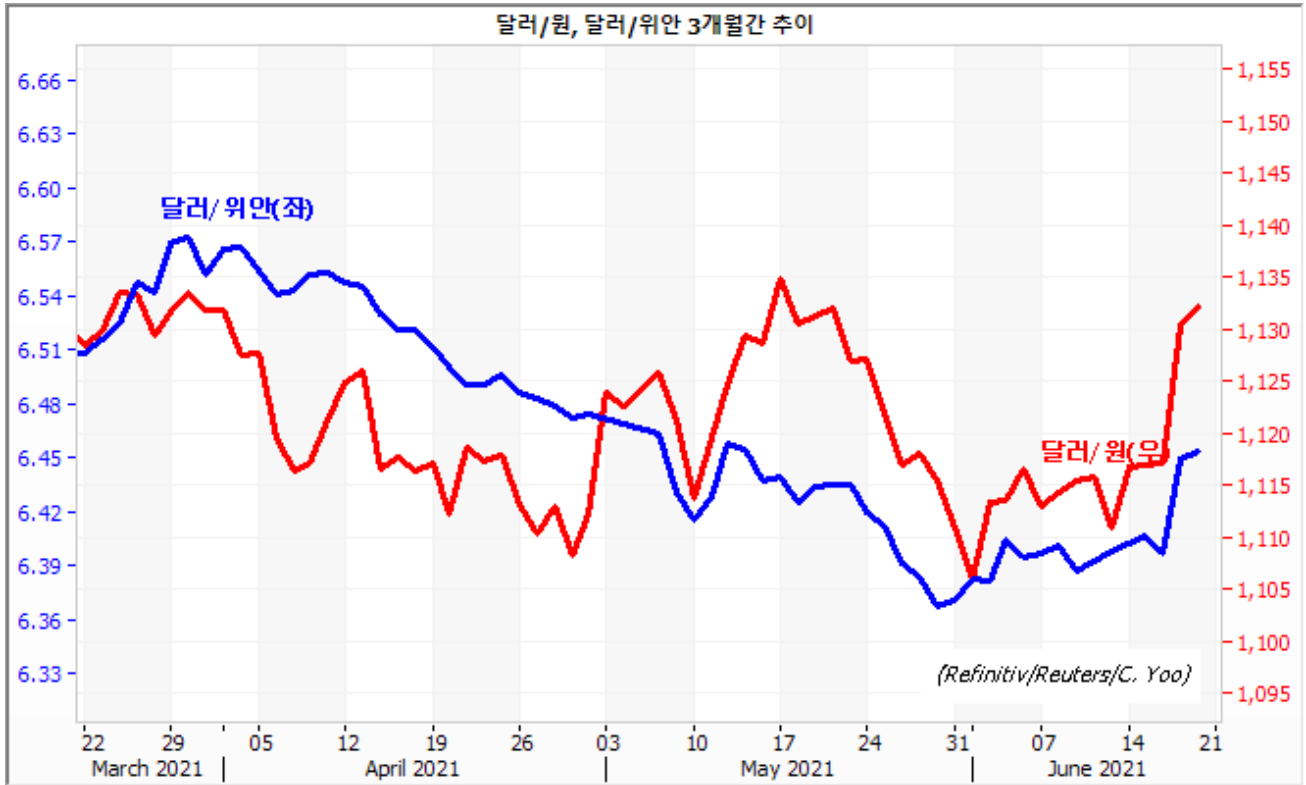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흐름에 반대되는 거래를 하고 중기적으로는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FX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며 이에 해당하는 통화로 JPY, TRY, EUR, AUD, ZAR 등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서 개인 투자 관련 수급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다른 통화에서처럼 잠재적인 가격 발견 기능까지 향후 그 역할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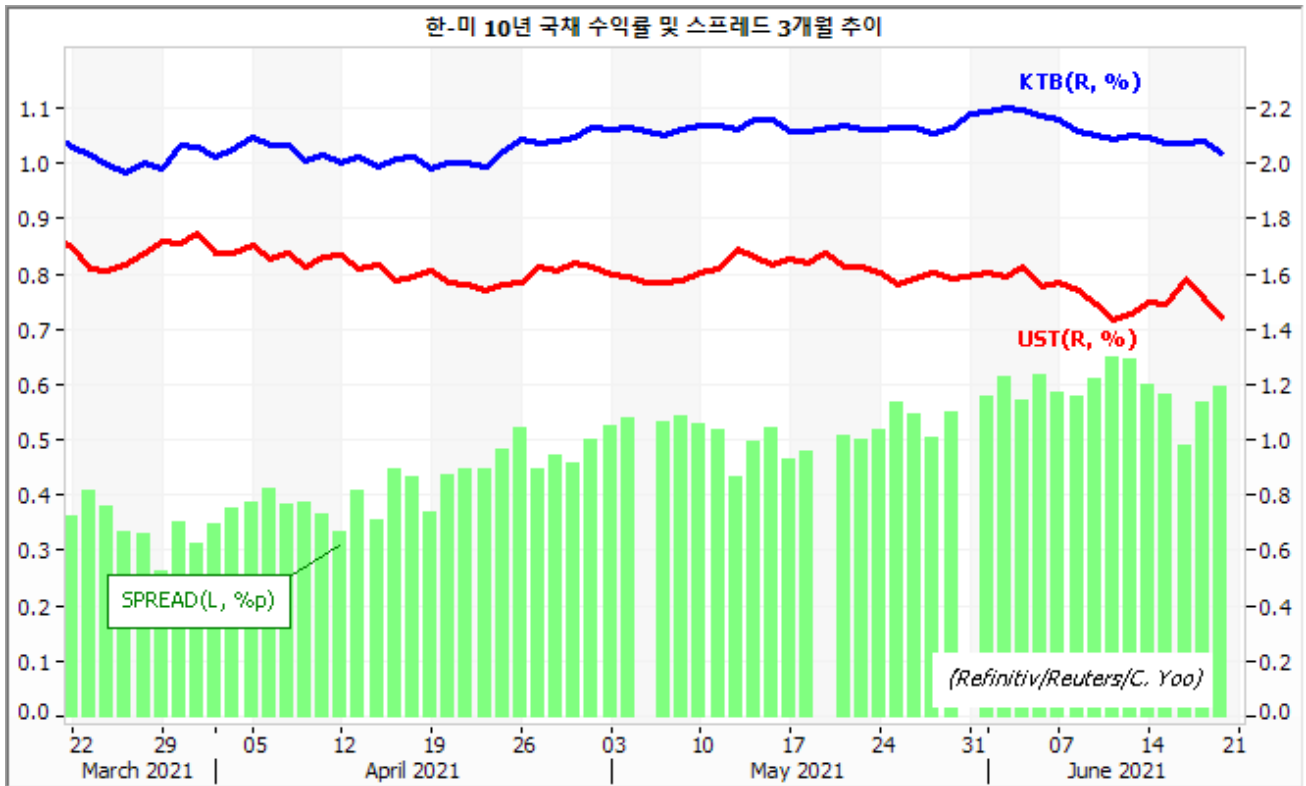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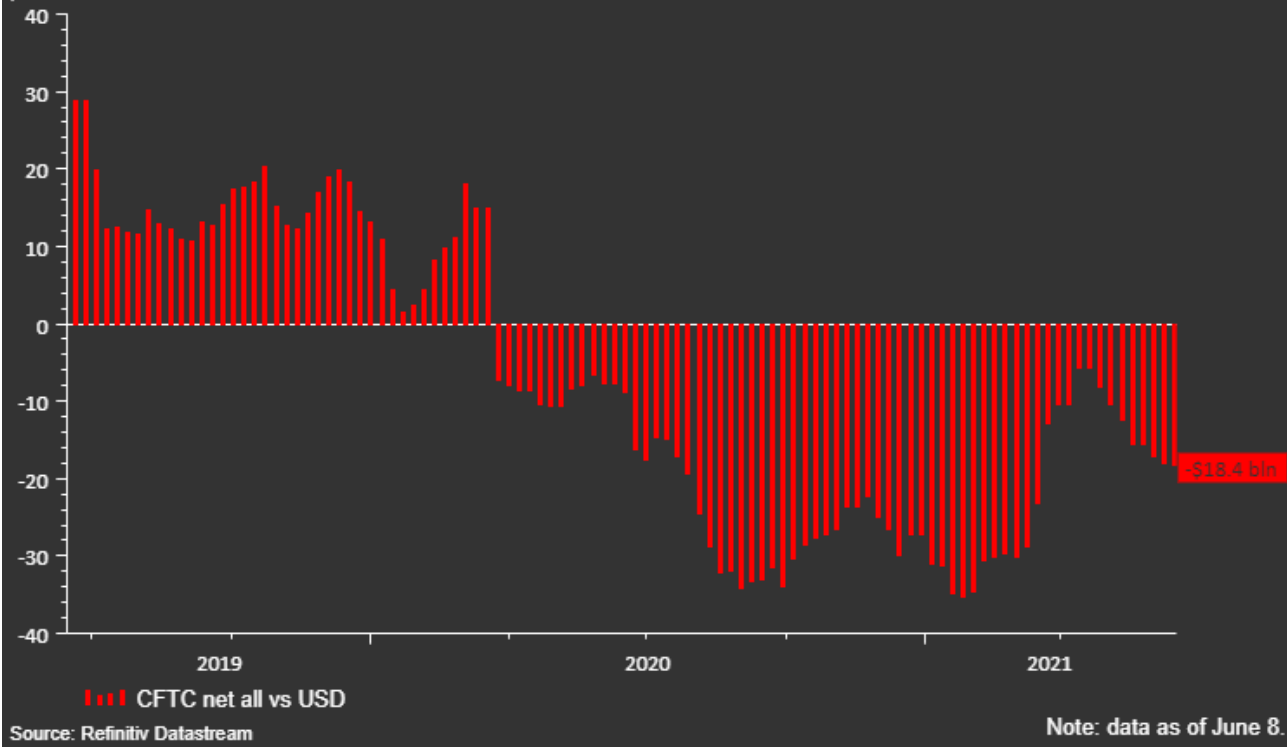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Bear trap

Speculators had a sizeable net short position on the U.S. dollar ahead of the June FOMC meeting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